

#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 Analysi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Landscape Pla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최 관  
경북대학교 임학과

### 1. 머리말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인공화(人工化)는 조경수와 같은 자연소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왔다. 1990년 약 6,000만본이었던 조경수 생산량이 1998년에는 약 1억5천만본이 생산되어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제발전,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임업에서 조경수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조경수 등의 생산은 투자기간의 장기성 등 용재 생산업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단기 임산소득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클 뿐 아니라, 임업부문으로의 투자유치 등 임업전반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적극적인 육성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조경수 생산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특정수종의 과잉생산, 낮은 생산자가격 등 많은 성장 저해요인을 안고 있는 바, 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시장전반이 활성화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의 손을 떠난 상품은 수집, 상·하차, 수송, 선별,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게 되며, 이 같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부분을 총체적으로 유통부문이라 할 수 있다. 생산과 소비부문에서의 변화는 유통부문의 변화를 초래하고 유통부문의 여러가지 변화 역시 생산과 소비부문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생산·유통·소비 세 부문간의 동태적 상호 연관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조경수목 시장 전반에 걸친 생산과 유통체계를 점검·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생산·유통부문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조경수목 생산자들의 소득안정화와 더 나아가 시장(市場)의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조경수 생산·유통실태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조경수의 종류와 식재분포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조경수목은 74과에 400여종이 식재되어 있다고 한다. 조경수목을 상록과 활엽으로 살펴보면, 상록수종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목류가 21%, 관목류가 15%, 덩굴성 식물이 2%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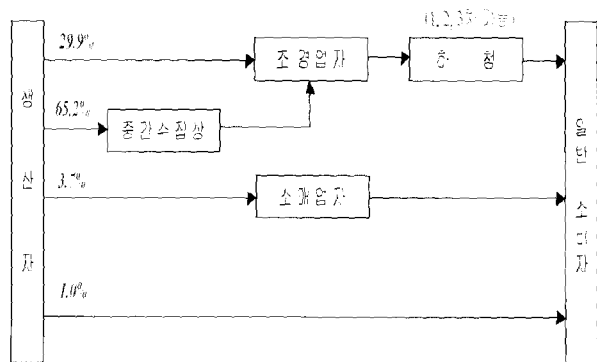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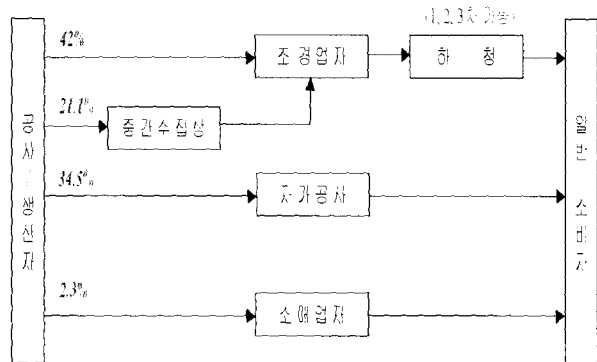
낙엽수종은 전체의 62%로 교목류가 33%, 관목류가 26%, 덩굴성 식물이 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약 400여종의 조경수종 가운데 조경공사에 흔히 식재되고 있는 수종은 대략 4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경수종별 생산현황을 생산본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8년 현재 철쭉이 20,885천본으로 전체 생산본수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단풍나무 15,807천본(10.8%), 회양목 10,209천본(7.0%), 동백나무 7,556천본(5.2%), 주목 6,159천본(4.2%), 느티나무 5,972천본(4.1%), 영산홍 5,082천본(3.5%)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 생산본수가 많은 철쭉, 단풍, 주목, 회양목 등은 기후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반면, 동백나무와 광나무, 후박나무 등 기후 여건에 따라 재배지가 국한되는 수종들은 지역별로 생산본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조경수목 생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조경수협회에 등록된 농가중 전국에서 60농가를 선정하여 직접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수익성 전

망, 생산계획,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수익전망에 대하여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38.7%, 이와는 반대로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36.7%로 집계되어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는 견해가 24.6%로 나타났다.

앞으로 조경수 재배면적 및 생산본수 증감계획에 대하여는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 응답자의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늘일 계획이다"라는 응



답자가 39.6%, “줄일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18.9%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판로 개척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경수의 가격불안정 17%, 과잉생산 10%, 노동력 부족 10%, 생산자금부족 8%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조경수목의 가격 안정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판매정보제공 21%, 생산자금지원확대 16%, 노동력 부족의 해결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생산자에서 최종 수요자까지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60농가의 생산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판매처별 공급물량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였다. 또한 조경수 생산전업농가와 생산 및 조경공사겸업 농가의 유통경로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두 가지 생산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유통경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경수 생산전업농가는 전체 조경수 물동량의 약 35.5%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조경공사업과 생산을 겸업으로 하는 생산자에 의한 유통 물동량이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경수의 공급은 주로 생산과 공사를 겸업으로 하는 농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경수 생산만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 의한 유통경로는 크게 4가지로 조사되었다(그림 1). 이들 유통경로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중간상인 혹은 조경업자에 의하여 수요처에 납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자와 실소비자의 직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생산과 조경공사를 겸업으로 하는 농가에 의하여 생산되는 조경수 유통경로는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그림 2). 이들 유통경로에서 약 63%의 물량이 중간상인 혹은 조경업자에 의하여 수요처에 납품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가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도 3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자에서 최종소비자까지 각각의 유통경로별 유통마진은 유통단계에 따라 15~3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검토한 유통경로와 같이 유통마진을 생산전업농가와 생산 및 조경공사를 겸업으로 하는 농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통경로별 유통마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전업농가에서의 경우 생산자에서 중간수집상을 거쳐 조경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최종가격의 약 20%를 중간수집상이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자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최종가격의 약 30% 수준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자에서 소매업자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최종가격의 약 20%를 소매업자가 유통마진으로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과 공사를 겸업으로 하는 농가에서의 유통마진은 생산자에서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조경업자에게 납품되는 유통과정에서는 최종가격의 약 15%를 중간수집상이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직접 조경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약 20%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자가 소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경로에서는 소매업자가 약 20%의 유통마진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접 자가 공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가격의 약 30%의 유통마진을 생산자가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조경수 생산·유통의 문제점

1) 생산정보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적 생산

조경수 수목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개별 조경공사에 공급되는 수종은 소량·다품종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정확한 생산정보와 공급가능량에 대한 정보는 개별 생산자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실정이다. 또한 조경수 생산농가가 전국에 걸쳐 분

산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되고 있는 조경수의 지역별·수종별 생산현황과 현재의 시점에서 조경공사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공급가능량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전국적·지역적 생산정보의 획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산자가 재배하고자 하는 수종은 당연히 비교적 판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수종에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특정수종의 과잉생산이나 품귀현상과 같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 2) 신수종 개발의 기피

우리나라의 조경수 생산자는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는 현재 인기가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종을 안전하게 택하여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선진국에서는 자국내 수종 뿐 만 아니라 관상가치가 높은 외국의 수종들에 대하여도 자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관상가치가 높은 외래수종에 대한 적극적인 변종개발을 통하여 역수출까지 수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조경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현재 고시하고 있는 수종을 설계에 반

영하고 있어 설령 생산자가 많은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통하여 관상가치가 우수한 신수종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사설계단계에서부터 이들 개발 신수종이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수종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신수종이 고시가격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혹은



이를 산정할 만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면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의 부재는 생산자가 신수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유통정보의 수집·전파 체계의 미비

조경수의 유통정보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공간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경수 생산자,

중간상인, 조경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사 발주자와 함께 이들 조경수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정책 입안자까지 모든 산업관련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조경수 정

보체계의 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조경수 관련 정보체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보체계는 물론 유통단계별 수평적 정보공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조경수 생산과 수요정보는 중간상인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으며 중간상인에 의한 조경수의 거래의 대부분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수요정보력의 불균형은 조경수 생산자의 가격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낮은 생산자 수취가격을 초래하게 된다.

#### 4) 규격화의 미비

조경수는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수종이라 하더라도 비배관리 등 재배기술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수목의 활력도와 성장력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조달청이나 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현행 조경수 유통규격은 대부분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관고, 지하고, 수관길이 등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준들은 조경수의 크기에 관계되는 요인들로, 이외에 수목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品質)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제도와 같이 수목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여 유통되는 현실에서 시공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조경수를 확보를 위하여 크기 이외에도 수목의 건강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수요자와 생산자간 신뢰를 위한 세분화된 품질표시기준과 이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의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 4 조경수 생산·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조경수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전파, 규격표준화, 가격안정화, 신수종의 개발 등의 문제점들은 유통단

계별 혹은 생산과 유통주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생산 및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각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들 개선방안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별 협력·보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생산·유통정보체계의 구축

조경수 생산과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전파, 그리고 이들 정보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전파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국조경수협회를 주축으로 개별 생산자가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조경수목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이들 생산정보가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망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적·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산자 단체에서 수집된 생산·유통정보는 임산물 유통정보망과 연계하여 정보체계형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이다. 정보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정가격의 형성과 과잉생산·품귀현상과 같은 생산자가 가격수취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정보체계의 신속한 제공과 주기적인 정보갱신, 그리고 신규수종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유통정보체계는 또한 앞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으로서도 중요하다.

##### 2) 품질관리를 통한 유통규격화의 정비

조경수의 유통규격은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규격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현행 조경수 유통규격은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관고, 지하고, 수관길이 등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의 건강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자와 생산자간 조경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품질표시기준과 이를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의 생산·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즉, 절대적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규격기준과 함께 보다 세분되는 단점을 지니지만 수요처인 조경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수목의 활착력에 관련한 뿌리 분의 기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뿌리 분에 관한 규격항목으로는 뿌리 분의 직경, 높이, 노출기간, 매어진 뿌리 분의 견고성, 세근의 식별정도 등의 활착을 위한 기본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신수종의 개발

최근 외국 선진국에서는 자국내 수종 뿐 만 아니라 관상 가치가 높은 외국의 수종들에 대하여 자국내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수종에 대한 변종개발을 통하여 수출에까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조경수 생산자 단체인 식목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생산자들이 관상 가치가 높은 외국

수목을 찾기 위하여 직접 외국 지역을 방문하고 수목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여 자국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관상 가치가 높고 자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 수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국의 환경조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또한 신수종을 도입 혹은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신수종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신수종에 관하여 기존 서적이나 협회간 행물, 협회에서 자체 제작한 달력 등에 신수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주수요처인 공공기관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신수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조경수에 대한 조달청 고시가격에 포함된 수종과 함께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에 대하여도 고시가격과 규격을 정비하여 생산자, 학계, 그리고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수종이 실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서는 정부의 신수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면 기존의 몇몇 특정 인기수종위주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장래 수익성이 높은 신수종을 적극적으로 개발·재배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조경수 생산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는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경수**

